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 널리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 사회가 가져온 '전자 패놉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 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근대 관료제와 복지 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또 정보 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배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정보 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 연방 수사국(FBI)의 국가 범죄 정보 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아이피(IP) 주소나 전자 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모습을 낳았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 주민 카드에는 원래 주민 등록증, 주민 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지문, 운전 면허증, 의료 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다.

* 『1984년』 :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1949년에 발표한 소설로 1984년의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 첨단 기술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전체주의적 절대 권력 앞에 무력한 개인의 모습을 묘사함.

* 빅 브라더 :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등장하는 독재자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존재.

* 패놉티콘 :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원형 교도소 이름. 그 형태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쪽의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독하기 위한 공간이 있음.

* 찰스 배비지 : 영국의 수학자로 계산기의 원리를 고안함.

* 보석 :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쿠키 : 특정 웹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만들어지는 정보를 담는 파일.

출처 : 서혁 외, 『고등학교 독서』(출제진 재구성)

[나] 이 통제 체제는 노동의 전 과정을 따라다니지만,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 · 능력 · 행동 방식 · 신속성 · 열성 · 품행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직공의 옆에서 이루어지는 장인의 가내공업적인 통제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체제가 사무원 · 감시인 · 감독관 등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이다. 생산 장치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됨에 따라, 또 직공의 수가 증가하고 분업이 발달함에 따라, 통제의 업무는 더 필요하고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체제는 분명한 기능을 갖고 생산과정과 완전히 통합해 있어야 하고 생산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공들과 구별되면서 항상 자리를 지키는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큰 공장에서 모든 일은 종소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공들은 통제되고 거칠게 취급된다. 집단을 상대할 경우에 사무원들은 우월적이고 명령조의 태도에 익숙해져서, 직공들을 거칠게 다루거나 멸시하듯이 다룬다. 그 결과 직공들은 한층 더 높은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보다 소규모의 공장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직공들이 아무리 이 체제보다 수공업 조합적인 형태의 작업 환경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주는 이 체제를 공업 생산 조직이나 사유재산, 그리고 이윤 등과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 인식한다. 공장이나 철공소, 광산 등과 같이 큰 규모의 생산 조직에서도 소모품이 극히 다양하므로 소모품들을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 전체 수입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게 되어 이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본을 잠식해 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눈에 띄지는 않으면서 매일 되풀이되는 별것 아닌 미숙한 행동이 단시일 내에 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주의 직속으로 직공의 감독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한순간의 노동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직공들을 감시하고 모든 작업 현장을 점검하며 모든 사건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직공의 감독은 생산도구 안에 내재해 있는 생산의 부품인 동시에, 규율과 징계의 권력 안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톱니바퀴라는 점에서 경제의 결정적인 작용 요소가 된다.

출처 : 미셸 푸코, 「규율」(출제진 재구성)

[다]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김시우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 매점에서 파는 식품을 사 먹은 몇 명의 학생들이 배탈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간식을 먹기 위해 매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되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학교 매점에서 유해 · 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초 · 중 · 고교 매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버젓이 유해 · 불량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제2의 가정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열량 · 저영양의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가 매점에서 판매하는 유해 · 불량 식품을 감독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기초 교육을 하면 학생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월 ○일

1학년 3반 김시우 올림.

출처 : 최원식 외, 『고등학교 국어』

[문제 2]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다]에 나오는 과학 기술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라]를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근대 과학은 그 출발에서부터, 진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치의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해 왔다. 그리하여 과학에서는 가치 중립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이 가치의 문제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즉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출처 : 차우규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입장은 과학 기술이 그 자체로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요인들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내용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과학 기술을 연구하거나 발견 또는 발명하는 주체도, 활용하는 주체도 인간이므로 과학 기술과 도덕적 가치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과학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조차 과학 체계와 지식 및 기술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것이다. 즉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오늘날 인간은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로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개발 초기부터 과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그 결과를 예측하여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엄격한 자기 검열의 자세를 갖는 등 내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 기술자는 과학적·윤리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문적 지식을 추구하고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기 등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나 개발 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여 연구와 개발, 그 활용에 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외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 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임 윤리에 따르면,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견하여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출처 :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최근 미국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가 유명 인사 1,280명의 서명을 받아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에는 ChatGPT 및 GPT-4를 개발한 연구소 OpenAI를 공동 설립한 일론 머스크,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스테이블디퓨전 개발사인 스테빌리티 AI를 설립한 에마드 모스타크 CEO,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아마존, 구글, 메타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도 서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인공지능 권위자인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 인공지능 기업 딥마인드의 연구진 등도 서명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서명자들은 GPT-4와 같은 인공지능의 위험 가능성을 적절하게 연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동안 거대 인공지능 개발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서에 의하면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되어야 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인공지능 연구실은 통제 불능의 경쟁 상태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자조차도 인공지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어하기 훨씬 더 힘든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배포하려는 욕구가 연구실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명자들은 '효과는 긍정적이고 위험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개발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명인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과 경쟁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고 결국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보다 더 영리하며, 인간을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게 될 비인간 지성 때문에 인류 문명의 통제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인공지능 연구소가 GPT-4보다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을 최소 6개월 동안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자율적으로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서명 프로젝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늘 걱정이 많은 '삶의 미래 연구소'가 제안한 일종의 이벤트이지만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ChatGPT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에서 ChatGPT에 대한 기대와 찬사가 도처에 넘쳐 나는 상황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과 그 결과물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기획자 또는 개발자 머릿속에는 없던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 갈등들이 해결 또는 순치되면서 새로운 기술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동화된다. 사회화 과정이 성숙해지면 법과 제도가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게 되고 사회적 도구로 활용된다.

1,280명의 서명인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아직 우리가 Chat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GPT-4 또는 그 이상의 거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미처 사회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거대 인공지능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갖고 인공지능의 윤리를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저작권과 특허권, 인공지능 무기화 등과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서명인들의 주장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복지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출처 : 『미디어스』, 2023. 4. 12.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결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빈곤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의 빈곤이 계속되면 당사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빈곤은 주로 저임금의 단순 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삶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게 만들어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게 한다. 또한 빈곤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 한 사회의 빈부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빈곤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 · 문화』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소득 수준은 전체 소득 분포상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특정 사회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수록 상향 조정된다. 국민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적 빈곤의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경제 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반면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기준에 따르면 빈곤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욕구 수준보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를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며, 주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 손영찬 외, 『고등학교 사회 · 문화』

[나] **<국내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출처 : 통계청, 2023

<연령 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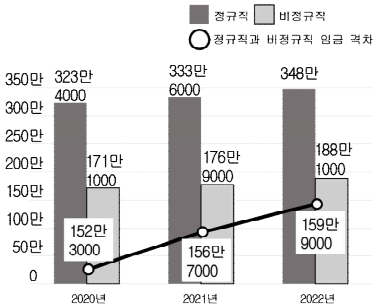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2.2	32.4	32.8	32.9	33.0	36.4	36.3	38.4
연령집단	15-19세	70.0	74.3	75.2	73.4	74.0	77.8	84.1	85.1
	20-29세	32.0	32.1	32.2	33.1	32.3	38.3	37.7	40.0
	30-39세	21.8	21.2	21.1	20.6	21.0	23.7	22.8	23.0
	40-49세	26.6	26.0	26.1	26.0	25.3	27.0	26.7	28.6
	50-59세	34.6	34.6	34.2	33.9	34.0	35.5	34.3	35.9
	60세이상	68.5	67.2	67.9	67.3	67.9	71.6	71.0	73.7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 근로자 수 ÷ 전체 임금 근로자 수) × 100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을 포함

출처 : 통계청, 2022

<고용 형태별 평균 임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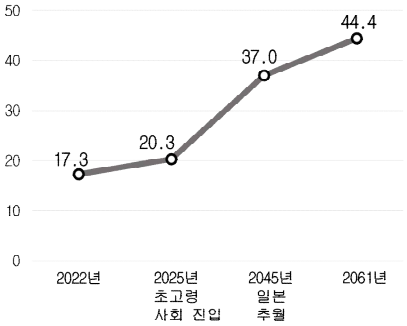


*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출처 : 『중앙일보』, 2022. 10. 25.

<국내 고령인구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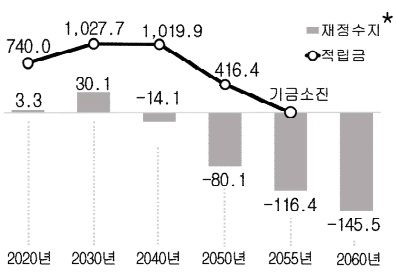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연합뉴스』, 2022. 1. 13.

<국내 국민연금 기금 전망>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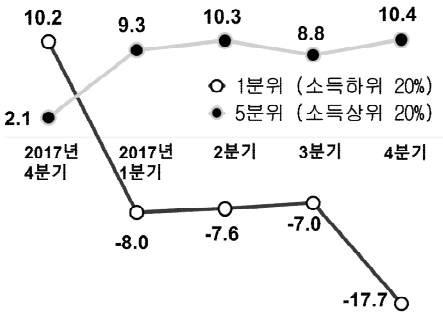


*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금액

출처 : 『연합뉴스』, 2022. 1. 13.

[다] <국내 가계 소득 증가율*>

(단위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출처 : 통계청, 2019

<국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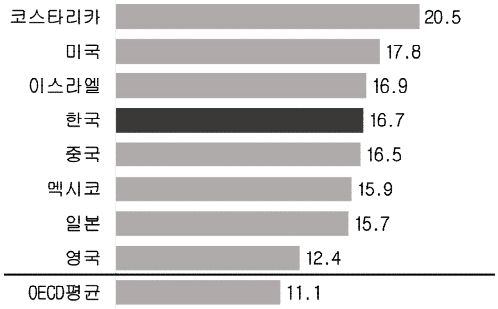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 수 (천명)	1,329	1,646	1,630	1,582	1,744	1,881	2,134	2,360
수급률* (%)	2.6	3.2	3.2	3.1	3.4	3.6	4.1	4.6

* 수급률 : 총 인구 대비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비율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22

<OECD 주요국 상대적 빈곤율*, 2018~2019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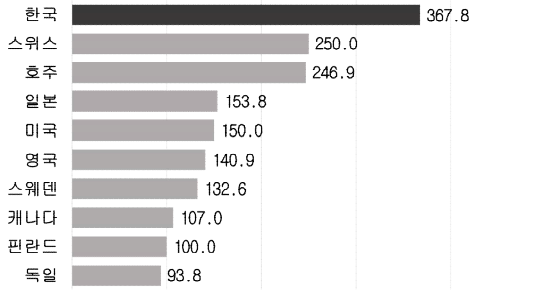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 중위 소득의 50% 미만 비율

출처 : 『경향신문』, 2021. 10. 25.

<OECD 주요국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도*>

(단위 : %)



* 상대적 빈곤 위험도 : 18~65세 빈곤율 대비 비율, 2018년 기준

출처 : 『중앙일보』, 2022. 4. 6.

[라]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 (단위 : %)

	부자*	가난한 사람*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88	2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의 힘을 믿는다	86	5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86	26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81	9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80	12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	76	23
자녀에게 매일의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친다	74	1
자녀에 한 달에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킨다	70	3
목표를 기록해 둔다	67	17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63	5
출근하기 3시간 이상 전에 일어난다	44	3

* 부자 : 연소득 16만달러, 순자산 320만달러 이상

* 가난한 사람 : 연소득 3만달러, 순자산 5,000달러 이하

출처 : 『머니투데이』, 2015. 3. 14.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상대적 빈곤율, 2019> (단위 : %)

국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상대적 빈곤율
독일	25.6	10.9
벨기에	28.2	10.9
스웨덴	25.1	9.1
영국	19.5	12.4
캐나다	18.8	11.5
코스타리카	12.3	19.9
프랑스	30.7	8.4
한국	12.3	16.3
OECD 평균	20.1	11.1

* 사회복지지출 : 사람은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노령, 장애, 실업, 그리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출된 재원

출처 : OECD, 2021

[마] <사례 1>

한국의 가난한 노인은 폐지를 줍는다. 동네에서 작은 카트나 리어카에 폐지를 쌓아 담고 끄는 노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내다 팔아 먹고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학자들은 '폐지 줍는 노인'을 한국만의 현상으로 바라본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복지 정책은 미흡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등이 맞물리며 빚어진 현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폐지 줍는 노인이 20년 넘게 이어졌는데도 복지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다. 명절 때 선물로 주고받은 과일 상자가 누군가에게는 두꺼워서 값나가는 소중한 물건이자 경쟁 거리가 된다는 정도, 아니면 캄캄한 밤에 리어카를 끌다 교통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피상적으로 알 뿐이었다. 정작 이 노인들은 누구이고 얼마나 많은지, 왜 폐지를 줍고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는지는 잘 몰랐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 온 것이다. 하루 평균 이동 거리 12.3㎞에 노동 시간은 11시간 20분. 이렇게 일해서 버는 일당이 1만 428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의 10% 수준이다. 이처럼 고된 일상을 버티며 생계를 위한 유일한 활동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에 최소 1만 4,800명, 최대 1만 5,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5일 공개한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폐지 줍는 노인의 규모와 생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처음이다.

출처 :『경향신문』, 2022. 10. 5.

<사례 2>

"제가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 아이를 낳으면 저희 아이도 그럴 것 같아요." 결혼 3년 차인 김석진(가명)씨 부부는 아이가 없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김씨는 현재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음에도 아이를 낳는 게 망설여진다고 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아서다. 그는 "대학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는데, 잘사는 집 친구들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며 "'금수저'가 아니면 살기 힘든 사회라 생각한다. 굳이 아이를 낳아서 힘든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미서(가명)씨가 남편과 상의해 둘째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도 김씨와 비슷하다. 정씨는 결혼 전만 해도 아이를 두세 명 낳을 생각이었지만, 첫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정씨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옛말이지만 요즘은 부모 지원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조차 힘든 사회"라며 "둘을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아 한 명만 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부부가 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 환경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는 탄생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다.

출처 :『세계일보』, 2020. 10. 17.